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대연평도, 백령도라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적들의 침략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정세가 날로 첨예해지고있는 속에서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대연평도, 백령도라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실탄사격계획과 포병구분대들의 배치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포실탄사격을 진행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순차에 따라 포사격이 시작되였다.

천지를 진감하며 노호하는 포성과 함께 대기를 헤가르며 번개같이 날오는 포

탄들이 대연평도와 백령도에 도사리고있는 연평도서방어부대 본부, 괴뢰6해병려단 본부, 《하푼》발사기지, 90mm땡크포진지, 155mm자행포사포중대, 전과탐지기초소, 130mm방사포진지를 비롯하여 적대상물들로 가상한 목표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포병들이 목표들을 타격할 때마다 잘한다고, 정말 잘한다고 하시며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쌍안경으로 서남전선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 포병들이 쓴 명중포탄들이 통쾌하게 작렬하는것을 보시며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가 제일이라고, 무도영웅방어

대의 영웅포가 역시 다르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적진과의 실지거리를 타산하여 진지를 차지한 주체포와 방사포들에서 날린 포탄들도 목표들을 정확히 때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거리포병들이 자기들이 쓴 포탄이 어떻게 목표들을 타격하는가를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복수심으로 불라는 심장으로 불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적진》은 불도가니로 화하였다.

훈련에서는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의 포병들이 평시에 련마해온 포사격술을 남김없이 과시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으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포병들이 싸움의 날을 생각하며 훈련을 강도높이 진행하고있기에 명중포성을 올릴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서남전선과 서부전선의 최전방초소들을 시찰하면서 타격대상물들에 대한 정밀타격순차와 진압밀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주었는데 오늘 진행한 실탄사격을 통하여 4군단안의 포병들은 대연평도와 백령도의 적들을 불도가니에 처넣을수 있게 준비되어있음을 검열받았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현대전은 포병전이며 포병 싸움준비이자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이고

조국통일대전에서의 승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포병무력을 더욱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이날 포실탄사격훈련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의 포병들을 평양으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격정에 겨워 《만세!》를 부르는 군인들을 미덥게 바라보시며 전선시찰의 길에서 자신과 친숙해진 군인들이라고, 옥류관에서 식사를 꼭 시켜 보내라고 지휘성원들에게 당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서부전선 최대열점지역의 전초기지인 월내도방어대와 조선인민군 제641군부대관하 장거리포병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적들의 광란적인 침략전쟁소동이 최절정으로 치달고있는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 때인 3월 11일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백령도라격에 바라보이는 서부전선 최대열점지역의 전초기지인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이른아침 작은 발동선을 타시고 날바다를 헤치시며 방어대에 도착하시자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은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어머니들의 손을 잡고 발을 동동 구르는 섬방어대 어린이들을 한명한명 따듯이 품어주시며 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랜 시간 방어대의 오솔길을 걸으시며 섬의 지형지물과 화력기재들의 배치상태, 군인들의 생활상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 오르시어 방어대장으로부터 적정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육안으로 뚜렷이 보이는 백령도에 도사리고있는 남조선괴뢰6해병려단의 배치상태와 대상물들을 하나하나 료해하시고 적들이 기도하고있는 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부대가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방어대지휘관들과 동행한 제4군단 포병지휘성원들에게 괴뢰6해병려단의 전과탐지기초소들과 포발견탐지기들, 《하푼》발사기지와 130mm방사포, 155mm자행포사포중대들을 비롯한 적대상물들을 소멸하기 위한 타

격순차와 진압밀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주시였다.

또한 적합선들이 군사분계선 해상수역에 접근할 때에는 위압적인 경고사격을, 침범할 때에는 강력한 조준격파사격을 가할데 대한 새로운 해상작전규정을 비준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서남전선의 최전방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을 시찰하는것은 전투준비상태를 정확히 료해하고 타격대상물들에 대한 정밀타격순차를 최종적으로 확정해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숙담에 불을 좋아하는 놈 불에 타죽는다는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불에 타죽으려고 찍하면 에미한 열점지역에서 불장난질을 해대고 있는 적들을 자신께서 명령만 내리면 모조리 불도가니에 쓸어넣으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현재 우리의 화력밀도가 대단히 높다, 백령도의 적대상물들을 3중4중으로 타격할수 있다, 백령도를 불바다로 만들수 있다고 확신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싸움의 날 불바다에 잠기고 처참하게 짓이겨지는 적진을 방어대장이 직접 사진을 찍어 최고사령부에 전송하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장재도방어대와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면서도 당부하였지만 월내도방어대의 포병들도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내리면 조국통일대전의 첫 포성, 신호탄을 쏘아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면대결준비를 철저히 갖추데 대한 최고사령부의 의도대로 감시소를 비롯한 전투진지들을 잘 꾸렸다고, 모든것이 만족하다고 하시

면서 이 섬방어대는 백점, 만점짜리 부대, 방어기지로부터 타격기지로 전환된 부대라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면서 방어대를 난공불락의 요새, 불침의 전함으로 만든 방어대와 정치지도원에게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현지에서 직접 한등급의 높은 군사칭호를 수여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감시군무를 수행하는 초급병사 김광철과 방어대지휘관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병실, 교양실을 돌아보시며 군인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방어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군인들과 군인가족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날 방어대군인들의 예술소조공연을 보시였다.

공연무대에는 설화와 합창 《그리움은 끝이 없네》, 합창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3중창 《내가 지켜선 조국》, 합창 《해안포병의 노래》, 기악과 노래 《중대생활 좋다》, 중창과 합창 《장군님의 자애로운 품을 병사들은 노래하네》, 4중창 《불라는 소원》, 시와 합창 《백두산총대는 대답하리라》, 《경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종목들이 울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공연을 정말 잘하였다고, 모두 노래를 잘한다고, 이것이 바로 선군문화의 본보기라고, 바늘들어갈 틈도 없다고 하시면서 방어대는 정치사상교양사업도 당의 의도에 맞게 잘하고있다고 치하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3월 11일 침략도발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는 백령도의 적들을 타격소멸할 화력임무를 맡고있는 조선인민군 제641군부대의 싸움준비상태를 검열하시기 위하여 군부대관하 장거리포병구분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최전방에 위치한 구분대에 도착하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터쳐올리는 군인들은 혁명의 최전방에 최고사령부를 두시고 우리의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해주시는 백두의 천출명장을 뜨거운 격정속에 맞이하였다.

원수님께서서는 격정의 눈물로 두볼을 적시는 군인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며 그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구분대의 군인들이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휘관들로부터 구분대의 전투준비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를 받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부대가 최고사령부의 작전전술적기조에 맞게 전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있으며 타격할 적대상물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사격명령을 기다리고있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구분대가 장비한 주체포들을 보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백령도의 적들이 움푹하기만 하면 괴뢰6해병려단 본부와 관하해병대대들을 무자비한 화력타격으로 초도화할데 대한 임무를 수립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구분대군인들

의 화력복무훈련을 지도하시면서 사격준비시간을 판정하시였다.

포병들의 훈련모습을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군인들이 이제 당장이라도 포탄을 날릴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현대전은 포병전이며 포병싸움준비이자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이라고 하시면서 군부대의 전투동원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신께서는 이곳 포병부대를 중시하신다고 하시면서 적들이 무분별하게 날뛴다면 상상할수 없는 위력한 타격으로 정의의 불벼락을 들썩여 침략의 무리들이 다시는 살아날뻘지 못하게 모조리 짓밟아버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구분대관하 중대의 교양실, 침실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서부전선지구에 위치한 군부대들의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목숨바쳐 사수하기 위해 모든 작전지역들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전변시키데 대하여 다시금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적들의 무모한 침략도발광판에 의해 서부전선지구는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수 있는 최대열점지대라고 하시면서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 조건에 맞게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있다가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조국의 바다에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원수의 머리에 강력한 보복타격을 안기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조선인민군 제531군부대에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531군부대에 예술선전대공연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관람석에 나오시자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는 관람자들은 탁월한 군사전략전술사상과 백전백승의 지략, 탁월한 령군술을 지니시고 조국의 존엄과 민족의 자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관람자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였다.

공연무대에는 설화와 합창 《조선의 힘》, 대화시 《명장과 포병》, 녀성5중창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령도자》, 선동곡 《안아오자 더 큰 콩대풍을》, 녀성

독창과 방창 《당을 노래하노라》, 극제단 《인민군대 그 이름 빛내가자》, 기악과 노래편곡 《해안포병의 노래》, 《전사의 노래》, 《병사들아 영웅이 되자》, 시이야기 《남해가 앞에 있다》, 합창 《천만이 총폭탄되리라》의 종목들이 울렸다.

공연이 끝나자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러 터치는 관람자들과 출연자들의 《만세!》의 환호성으로 하여 장내는 대하마냥 설레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를 터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답례하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531군부대에 예술선전대의 예술인들이 자나깨나 싸움만을 생각하고 적들과의 대결전에서 언제나 백승만을 떨칠 우리 인민군대의 높은 사상정신적품도와 전투적기상을 담은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예술선전대의

공연은 오늘의 준엄한 정세를 잘 반영한 공연, 사상적대가 뚜렷하고 바늘들어갈 틈이 없는 공연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제531군부대에 예술선전대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예술활동으로 부대장병들을 최후승리를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4.25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의 활쏘기경기를 보시고 청춘거리 체육촌을 돌아보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4.25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의 활쏘기 경기를 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경기에 앞서 활쏘기선수들이 사용하는 기재들을 보아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4.25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의 활쏘기경기를 보시었다.

먼저 남, 녀 단체경기가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화살들이 목표판의 중심에 정확히 들어가 맞을 때마다 잘한다고 치하해주시었다.

단체경기에서는 4.25국방체육단의 활쏘기선수들이 이겼다.

계속하여 남, 녀 개인경기가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4.25국방체육단의 강은주선수가 3개의 화살을 날려 30점을 획득했을 때에는 잘한다고, 정말

잘 쓴다고 하시며 그만하면 국제경기에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다고 치하하시었다.

개인경기에서도 4.25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이 이겼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진행한 경기기를 보면서 우리의 활쏘기선수들이 앞으로 올림픽경기를 비롯한 국제경기에 출전하여 얼마든지 우승할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4.25국방체육단과 압록강국방체육단 활쏘기선수들, 감독들, 지휘성원들이 활쏘기종목을 더욱 발전시켜 국제경기들에서 훌륭한 경기성적을 이룩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청춘거리 체육촌을 돌아보시었다.

지난 기간 우리의 체육발전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체육교류에 적극 이바지해온 청춘거리 체육촌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시킬 구상을 안으시고 현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여러 경기관들과 식당, 호텔들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사업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먼저 통구경기관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통구경기관의 바닥과 관람석을 주의깊게 보시면서 개건보수할 때 시정해야 할 문제들에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경기홀과 선수대기실을 보시면서는 방음과 온도보장대책을 바로세우고 모든 시설물들을 경기관의 특성에 맞게 잘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이어 탁구경기관을 돌아보시었다.

탁구경기관에 전개해놓은 탁구관의 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선수들을 위해 더 좋은 체육기자재들을 안겨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력기경기관에 들리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경기홀과 관람석, 선수대기실을 돌아보시면서 력기경기관을 잘 꾸려 력기가 앞으로 승산종목의 하나로 되게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체육인 식당도 돌아보시었다.

국제경기들에서 나라의 영예를 떨치고 인민들에게 민족적공기와 자부심을 안겨주고있는 체육선수들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선수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을 잘하기 위한 방도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고 필요한 대책도 세워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서산호텔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식당과 여러 방들을 돌아보시면서 서산호텔을 체육인

들과 관람자들에 대한 봉사활동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현대적인 호텔로 개건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구체적인 과업들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청춘거리 체육촌을 현대적으로 개건한 후 체육시설물 관리체제를 바로세우는 문제, 경기관들의 정상운영, 정상관리, 정상보수사업에서 나서는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나라를 체육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체육성을 비롯한 해당 부문들에서 빠른 기간안에 청춘거리 체육촌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종합적인 체육문화기지로 훌륭히 개건보수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통정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통정양어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통정양어장은 통정원소의 물을 원천으로 현대적인 양어장을 건설할데 대한 아버지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꾸러진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본보기양어장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2010년 11월 21일 아버지장군님을 모시고 이곳을 찾으시었다. 낱을 잊을수 없다고 하시면서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양어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시기 위해 멀고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으신 장군님의 헌신과

고를 뜨겁게 회고하시었다.

종합지휘실에 들리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컴퓨터로 실내 및 야외양어못들의 물량, 온도, 폐하, 산소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수중카메라로 물고기들의 생리상태를 감시하는 모습을 주의깊게 보아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양어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양어의 과학화라고 하시면서 그레야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통정원소의 물길을 따라 가로세로 산뜻하면서 또 정갈하게 꾸러진 양어못들을 돌아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양어못들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철갑상어들과

여 종류의 물고기들을 기쁨속에 바라보시었다.

특히 어버이장군님께서 오시였을 때 120kg이던 종어용철갑상어들의 무게가 이제는 170kg이상 나가고 1kg도 못되던 장수어가 10kg이상 나간다는것을 로해하시고 환하게 웃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양어못들에 쉽없이 흘러드는 통정원소의 샘물을 보시고 언제인가 원소의 샘줄기가 막혔을 때 군인들과 종업원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 원소를 다시 살려냈다고 하시면서 양어에서 물보장은 특별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야외양어못 주변에 건설된 사료공장과 단백질공장을 바라보시면서 어버이장군님께서 다

신 공장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아무리 현대적인 양어장을 건설했다 해도 먹이보장을 따라세우지 못하면 실질적인 덕을 볼수 없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양어장 구내에 써붙인 《철갑상어는 바다로, 조선은 세계로》라는 글발을 바라보시며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첨단돌과전이 힘있게 벌어져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창조되고있다고 하시면서 위성은 우주에로라는 글발도 써넣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통정양어장은 어버이장군님의 인민사랑이 낳은 결정체라고 하시면서 양어장구내에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칭송하는 사적비와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정중히 모시어 후손만대에 길이 전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통정양어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이시려고 그토록 마음써오신 어버이장군님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는데서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통정양어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양어를 대대적으로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나라의 양어사업을 발전시키고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기여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선군령장을 모시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보여주는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은 세계를 놀래우고있다.

그 누가 감히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려한다면 후호도 용서치 않는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는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의 행사이며 제3차 지하핵실험도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적대시압살책동에 대처한 실제적인 대응조치의 하나이다.

언제인가 로씨야의 한 인사는 자기의 글에서 작용과 반작용은 고전력학의 기초로 되는 뉴턴의 제3법칙이라는것, 뉴턴의 제3법칙처럼 미국이 압력을 가할수록 조선인민은 더 강해진다라는것, 미국이 핵무기로 위협하면 할수록 조선인민의 타격력도 더 강해진다라는것, 이것은 김정은원수님께서 내놓으신 《조선의 정치력학》이라고 썼다.

자기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유린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한 걸음의 양보도 없다는것은 지난 60여년간의 조미대결력사에서도 증명된 사실이다.

20세기 1950년대의 조국해방전쟁으로부터 1960년대의 미제무장간첩선 《후에블로》 호사건과 《EC-121》 대형간첩비행기 사건, 1970년대의 판문점사건, 1990년대와 2000년대를 이어오는 조미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한것은 조선이었고 수처와 패배의 교배를 마신것은 미국이었다. 조선의 강경한 반미대결 자세에 대해 《미국의 소리》 방송은 한번 공격받으면 열번 반격

하는 《일공십격》이라고 평하면서 죽어도 망국노가 되지 않으려는 비장한 각오를 가진 특이한 정치사상적실체가 바로 김정은원수님께서 복조선이다. 목숨은 버려도 제국주의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각오가 짙들어 찬 북조선, 《일공십격》하는 북

조선을 건드렸다가 미국이 얻을것이란 과멸뿐이다라고 했다.

조선의 강한 힘은 령도자의 위대성에 원천을 두고있다.

인민은 사상도 의지도 배짱도 령도자를 따른다. 또한 령도자가 위대해야 단결이 이루어지고 그 것이 곧 힘이다.

그러나 오늘의 조선은

절세위인들을 모시여 한 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한 나라, 막강한 군력으로 반공화국적대적력과 대결에서 련전연승하는 강위력한 나라로 존엄을 떨치고 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령도따라 승리만을 떨쳐온 공화국은 또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놓고있다.

일촉즉발의 참예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는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무비의 담력과 배짱, 천리헤안의 군사적 예지로 언제나 최전선에 계시며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을 승리에로 이끄신다.

선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 지역에 위치한 장재도와 무도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적들이 예민한 수역에서 우리를 또다시 조급이라도 김드리는 망동질을 해낸다면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전 전선에서 정의의 조국통일대진군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겠다고 하시며 병사들의 가슴에 무한한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백병도가 지척에 바라보이는 서부전선 최대열점 지역의 전초기지인 월내도방어대를 찾으시여서는 속담에 불을 좋아하는 놈 불에 타죽는다는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불에 타죽으려고 찍하면 예민한 열점지역에서 불장난질을 해대고있는 적들을 자신께서 명명만 내리면 모조리 불도가니에 쓸어넣으라고 하시며 떨적의 투지와 신심을 북돋아주시었다.

적대세력들의 감당을 서늘케 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최전연 전선시찰소식은 지금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하기 위한 정의의 투쟁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위대한 선군령장이신 김정은원수님의 비범하고도 천재적인 령도가 있기에 선군조선의 최후승리는 확정적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민족의 힘

금세기에 우리 민족은 세계의 각광을 받고있다.

2012년 12월 12일에 나는 이를 재확인할수 있었다.

우리 조국은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시킴으로써 우주강국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섰다. 이는 조국의 종합적국력의 파시인 동시에 우리 민족의 힘과 존엄의 표시이고 기쁨이 아닐수 없다. 해외에서 살면서 우리 조국이 자기의 힘과 기술로 만든 위성이 우주로 날아올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정말 우리 민족은 슬기롭고 위대하구나 하는 자긍심이었다.

조국에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서거하신 후 그이의 탄신일을 광명성절로 제정했다. 지금 우주계도를 돌고있는 인공지구위성의 이름도 《광명성》이다.

일찌기 항일빨간산들이 백두밀림에서 탄생하신 김정일장군님을 장차 민족을 향도할 별이라는 뜻에서 《백두광명성》으로 추앙한것이나 오늘 공화국이 인공지구위성을 그분의 업적을 길이 전한다는 의미에서 《광명성》으로 명명했거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한다.

장군님의 생은 이렇게 탄생부터 민족의 구세주로서 운명지어진다. 우리 조국의 첫 실용위성인 《광명성-3》호 2호기 발사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진행된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도 예측해죽으로 일관되어있는 김정일장군님의 한생의 업적의 표출이다.

민족의 힘과 존엄을 만방에 떨쳐주신 김정일장군님을 우리러살가 경모의 인사를 드리며 이 글을 쓴다.

* *

우리 백의민족은 정의와 진리를 사랑하고 민족의 빛과 존엄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다.

세나라시기에 박제상은 《차라리 계림의 개, 돼지가 될지언정 왜국의 신하는 될수 없으며 차라리 계림의 매를 맞을지언정 왜국의 벼슬과 록은 받을수 없다.》며 죽음을 맞았고 고려후기 사대에 물렸은 임금인 다른 나라의 옷차림을 하고 개경으로 돌아오는것을 보고 일연선님은 눈물을 흘리며 민족정신을 살리기 위해 《삼국유사》의 첫머리를 단군건국설로부터 엮었다. 외세를 물리치는 싸움터에서 울지문덕, 연개소문, 강감찬, 리순신장군이 세운 무훈은 오늘날 우리의 피를 꿩고 하고있다.

하나 조선봉건왕조 5백년의 사대정치로 국력이 쇠약해진 우리 민족은 20세기 초엽에 와서 외세의 종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으며 《시일야방성대곡》이라는 뼈에 사무치는 수치를 역사에 남겼다.

사랑하는 안해, 련인들이 꽃다운 아름다움을 뽐기고 유린당해야만 했고 무고한 겨레의 피가량자히 강토를 적시고 형제자매들은 금수처럼 맞아죽고 병나죽

고 굶어죽어야 했다. 지나온 민족의 과거사를 거슬러볼수록 겨레의 눈물과 피의 흔적은 력사의 돌기마다에 아프게 어려있고 그 많은 령혼들이 남긴 한은 오늘도 후대들에게 사명감을 자각하라 채치고있는것 같다.

하다면 우리 민족의 한이 새겨주는 피의 교훈, 그 한이 새겨주는 사명감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힘이다. 민족의 힘이 강하면 부흥하고 힘이 약하면 망한다는것은 력사의 진리이다.

김일성주석님께서 백두산아를 넘나드시며 항일대전을 승리로 이끄시어 민족재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김정일장군님께서 우리 민족을 더욱 힘있고 존엄높은 민족으로 일떠세워주시었다.

2005년 2월 10일 공화국의무성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냈다. 《...우리는 이미 부위행정부의 중대되는 대조선고립압살정책에 맞서 핵무기전과방비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핵억제력으로 남아있을것이다. ...》

지구가 통채로 뒤흔들렸다. 온 세계가 공화국의 핵보유선언에 대해 떠들었다.

남조선의 《말》잡지는 《미국은 동북아시아의 단독패권국가였다. 그러나 더이상 패권국가가 아니다. 동북아시아의 단독

패권국가였던 시절은 2005년 2월 10일로 이미 종말을 고하였다.》고 했으며 서방의 어느 한 신문도 《북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실패》했다고 썼다.

1905년에는 만국조약을 강요당했던 우리 민족은 100년이 지난 2005년에는 불패의 위력을 지닌 강국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재미동포 정지렬교수가 지난해 중국의 인터넷홈페이지 《제4인론》에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민족적으로나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령도자로 기억될것이며 또 기억될것이다. ...이것에서 력사상 류례없는 강대한 제국의 끊임 없는 군사적위협과 전쟁도발책동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성공적으로 빛나게 지켜냈다는것은 세계적으로 인정된 사실로 되었다.》고 글을 낸것처럼 우리 조국의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의 지위는 바로 김정일장군님께서 멀리 앞을 내다보시고 험난한 길을 헤치시며 마련해놓으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로마제국시기 지중해연안 온 천하는 로마제국우산아래에 있었다고 하여 《팍스 로마나(Pax Romana)》라고 불렀다. 오늘날 미국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구축해놓고 전세계를 지배하려고 한다.

그러나 지구촌 최대의 제국이 된 미국도 아킬레스건이 있다. 그것이 바로 《북조선알레르기》

이다. 세계를 호령하는 미국이 유일하게 꺼려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 조국이다.

그 비결을 나는 선군정치에서 찾았다.

오늘 세계가 인정하는 조선의 강한 군력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으로 안아오신 민족의 가장 큰 힘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분께서 이어가신 선군의 길은 우리 민족의 오늘을 물론 먼 앞날을 내다보시고 선택하신 선견지명의 길이었다.

세기는 바뀌었지만 오늘날 세계는 힘의 법칙에 의하여 움직이고있다. 강자가 약자를 집어삼키고 약자는 언어맞아도 어디가 하소연할데도 없는것이 맹혹한 국제현실이다.

민족의 패일을 멀리 내다보신 장군님께서 이 때 모든것을 확신하고 결정지으시었다. 그것은 민족이 자기를 지킬 강한 무기를 갖지 않으면 침략세력은 언제까지나 침략의 비수를 빼어들고 달려든다는것이다. 그분께서는 우리 민족이 가져야 할 힘은 오늘날이 아닌 후손만대의 삶까지 지켜주는 그런 막강한 힘이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신것이다.

이 무겁고도 책임적인 민족사적위업을 자신의 사명으로 무겁게 받아들으신 장군님께서 선군을 정치방식으로 택하셨고 민족의 힘인 자위적핵억제력을 마

련해놓으시었다.

오늘만이 아니라 먼 장래에도 적대세력의 침략의 마수로부터 민족을 구원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은 장군님의 심장을 불태웠고 자신에게 차려진 생을 그토록 모질게 연소시키는 필사의 각오를 낳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이께서는 생전에 늘 내가 일하면서 제일 아끼는것도 시간이고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것도 시간이 흐르는것이라고 하시면서 한초를 한시간이 되게 늘일수만 있다면 그만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겠는데 그렇게 할수 없는것이 안타깝다고 하시었다고 한다.

하기에 장군님께서 하루를 열흘, 백날맞잡이로 생을 달리셨고 제국주의세력이 몰아오는 침략의 광풍도 맞받아 정면으로 돌파해나가시었던것이다.

미국사람들이 《미국이 생겨서 북조선과 같은 작은 대상과 맞서 싸우면서 많은 무력과 말과 두뇌진이 동원된적은 없었다.》고 한 조미핵대결전은 력량상대비에서나 격렬성, 그 지속성이 있어서 인류전쟁사에도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특유의 대결이었지만 이 싸움에서 이긴것은 공화국이었다. 우리 민족이었다.

이는 전적으로 총대의 위력, 김정일장군님의 예측, 예측의 정치인 선군의 덕이다.

김정일장군님께서 그 어떤

모진 교생도 달게 여기시며 회망안고 선군길을 헤쳐가시었다. 장군님의 회망은 무엇이었던가? 나는 단언할수 있다. 그것은 더욱 번영할 민족의 래일이었으며 세계에 존엄높은 강국의 출현이었다. 때문에 장군님께서 은 온갖 교생도 달게 여기시고 민족을 위해 초강도강행군을 계속하셨다.

민족앞에 김정일장군님께서 세우신 업적은 참으로 특출한것이다. 그분께서 마련해놓으신 민족의 힘과 존엄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것을 나는 오늘도 세계정치기류를 보며 절감하고있다.

《21세기 세계미래는 유럽이나 중동에 있는것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에 있다. 그러므로 전략적 중점을 아시아태평양에 돌리고 지배권을 확립하여야 한다.》

이것이 오늘 미국의 세계지배교리에 따른 《아시아태평양전략》의 기본골자이다. 미국은 지난해 1월 유럽과 중동지역의 미군무력을 축감하여 아시아에 집중배치했다. 앞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힘과 힘의 대결이 가장 첨예한 열점지역으로 될것이다. 만약 우리 조국의 힘이 약하면 조선반도에서는 전쟁이 불사될것이고 민족은 또다시 피를 흘리게 될것이다.

모든 승패는 힘에서 결정된다.

민족의 존엄도, 평화도, 통일도, 번영도 힘이 있어야 담보

된다. 당당한 핵보유국, 인공위성제작 및 발사국으로 솟구쳐오른 조선의 국력은 김정일장군님께서 마련해주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민족의 운명에 서서 일어난 이 경이적사건은 결코 세월이 가져다준 우연이 아니라 선군위업의 개척자이시며 령도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께서 안아오신 력사의 필연이라고 하셨다.

민족수호와 번영의 만년기틀을 마련해주신 장군님의 업적에 다스름 깊이 머리숙여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을수 없다.

한 민족의 힘은 그 민족을 이끄는 령도자의 위대성에 있으며 위인의 지도를 받을 때 그 민족은 세계의 각광속에 영위를 누릴수 있다.

이것이 민족의 어제와 오늘이 우리 겨레에게 말해주는 만고의 진리이며 력사의 필연이다.

* *

오늘 저 아득한 우주를 돌고도는 《광명성-3》호 2호기의 축복을 받으며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민족의 힘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이다.

이번에 우리 조국이 진행한 제3차 지하핵시험은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를 용납하지 않으며 총대로 민족의 자주권을 끝까지 지키고 빛내이시려는 김정은원수님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뛰어난 령도실력을 과시한것과 더불어 우리 해외동포들은 한결같이 말하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 조국의 평화적위성발사를 놓고 그 무순 《제재결의》를 조작하며 긴장수위를 최고로 높이고 있는 때에 제3차 지하핵시험과 같은 실제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여 적대세력들을 되게 다블린것은 령도자와 인민이 일심일체를 이룬 우리 조국에서만 있을수 있는 사변이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공화국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지역의 완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침략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우리 조국의 정당한 인공지구위성발사와 지하핵시험을 결코 계속 압살책동에 매달리며 전쟁광풍을 몰아온다면 그 대가를 특특히 치르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조국의 인민들은 오늘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자주적인인민으로 만방에 존엄떨치고있다.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민족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며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도 앞당겨 이루어질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로 민족에게 힘을 주었다면 김정은원수님께서 그 힘을 바탕으로 통일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우리 민족에게 선물할것이라고 굳게 확신한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부위원장 최수봉



《설마》란 말은 마음을 놓거나 요행을 바라는데서 큰 랑패를 본다는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무능한 조선봉건왕조의 통치배들이 끝날 입에 올리던 말이 아마도 《설마》라는 말이였을것이다. 설마 일본이 우리를... 《설마》, 그것은 어찌할 힘이 약해 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사대와 굴종을 숙명처럼 감수해야만 했던 약소국의 한숨이었고 위안거리였다. 이 《설마》에 한 나라의 황후가 비참한 죽음을 당했고 나라가 망했으며 2천만의 겨레가 상가질개보다도 못한 노예의 비참한 운명에 처하였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의 군대와 인민이 즐겨쓰는 표현은 《설마》가 아니라 《만약》이다. 만약 적대세력들이 신성한 공화국령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만약 공화국의 존엄을 령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만약 또다시 이 땅에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온다면... 《만약》, 이것은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때로부터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철석같이 간직되어온 자기 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다. 또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나라의 지정학적위치는 변함이 없지만 령강들의 각축전마당으로 무참히 짓밟히던 어제날의 약소국이 아니라는것을 특특히 보여 주는 힘의 선언이다. 오늘 공화국은 적대세력의 끊임없는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속에서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을 따라 끝바로 나아가고있다. 공화국은 자체의 힘으로 실용위성도 제작발사하고 적대세력의 강권에 맞서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제3차 지하핵시험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를 오만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것은 적대세력들에게 내리는 경고이고 최후의 파멸선언이다. 만약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도발적인 침략전쟁연습을 계속 강행하면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령토와 수역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그 철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인수들의 머리우에 단호한 보복각력을 안기고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을 최후승리로 결속할것이다.

만약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본사기자 리경월



침략자들을 단매에 격멸하고 조국통일대전의 승리를 안아올것이다

도발자들은 임의의 시각에 보복의 불벼락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의 발광적인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강행으로 지금 조선반도정세가 갈수록 험악해지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4일 보도 제1022호를 발표하였다.

보도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현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는 적들의 북침전쟁연습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부터 조선전쟁협정과 북남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들을 전면 백지화할것이며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련속 취할것이라는것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그에 따라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통일을 위한 최후공격진지를 차지하였으며 핵라격수단을 비롯하여 정교한 모든 라격수단들이 목표들을 조준하고 명령을 기다리고있다.

우리가 선포한 중대조치들은 미제와 괴뢰들의 극악무

도한 적대행위와 무모한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대한 응당한 대응이며 최후통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들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라느니, 《협정파기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것》이라느니 뉘니 하면서 도전해나서고있다.

괴뢰당국자들과 추악한 어용매문가들은 련일 우리의 중대조치에 대해 《생방이 합의해야 한다.》느니, 《국제적인정를 받아야 한다.》느니 뉘니 하며 시비질해다 못해 이번 군사연습은 《정전협정의 틀안에서 년례적으로 실시되는 방어훈련》이라고 생방을 쓰고있다.

내외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정전협정과 불가침합의는 미제와 괴뢰들에 의해 파기되고 사문화된지 오래다.

미제와 괴뢰패당은 조선전쟁협정과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합의들이 채택발효된 순간부터 이를 체계적으로 유린말살해온 장본인이며

주범이다.

미제와 괴뢰들의 사상 류례없는 반공화국압살책동과 끊임없는 도발로 하여 이 땅에서는 군사적충돌을 방지할 그 모든 법률적장치가 유령무실해진 통제불능의 긴박한 사태가 이어져왔다.

특히 우리 공화국을 공격할 미국의 핵항공모함집단과 핵전략폭격기들이 1년내 내 남조선과 주변의 바다와 하늘에서 돌아치고있어 북침전쟁연습의 화약내가 가세될 날이 없다.

그러하여 조선반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최대열점지역으로, 한점의 불씨가 핵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첨예한 핵화약고로 되여왔다.

침략의 불꽃을 들고 달려드는 도발자들이 이제 와서 그 무슨 정전협정과 불가침합의존속을 운운하는것이 야말로 철면피의 극치이다.

지금 괴뢰패당은 우리의 단호한 결단을 그 무슨 《협박》이요, 《심리

전》이요 뉘오 하며 가소롭게 놀아내고있다.

침략자, 도발자들은 현 사태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지난 시기처럼 말 대 말의 대결로 오산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것은 없다.

이제 도발자들은 임의의 순간에 보복의 불벼락을 면치 못할것이다.

우리 천만군민은 이미 선포한대로 불을 즐기는 침략자, 도발자들의 아성과 본거지들을 모조리 초토화해버릴것이다.

평화의 파괴자, 전쟁도발자, 동족대결의 원흉은 우리의 정의의 라격을 피할 곳이 없을것이다.

괴뢰패당은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제재》로 얻을것이란 귀들자신의 파멸뿐이다

지난 7일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응조치의 하나로 공화국이 단행한 제3차 지하핵실험을 결코 또다시 즉각무도한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해냈다. 이번 《제재결의》는 지난 시기 유엔에서 공화국을 대상으로 하여 채택된 《제재결의》들과 마찬가지로 철두철미 공화국을 무장해제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려는 미국의 추악한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의 산물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조급이래도 공격성이 있다면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힘을 집중하려던 공화국을 핵실험으로 따민 미국의 포악무도한 반공화국적대행위부터 먼저 문제시했어야 하였다.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그것을 선언한 공화국은 이번에 핵실험을 꼭 해야 할 계획도 없었고 필요도 없게 되었다.

그러나 주권국가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를 란폭하게 침해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내세워 반공화국 《제재결의》라는것을 조작해낸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는 공화국으로 하여금 부득불 자위적인 지하핵실험

을 단행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부당 만부당한 《제재결의》라는것을 또다시 조작해낸것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공정성을 잃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압살정책실현을 위한 한 도구로 전락하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그러나 미국과 적대세력들은 오산하고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지난 8년동안 미국의 사측하에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다섯차례나 조작해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사태는 그들이 바라는데로 흘러가지 않았다.

공화국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의 산물인 《제재결의》들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고 단호히 배격하였으며 《제재》와 고립압살책동에 맞서 자주의 길, 선군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왔다. 그 길에서 오늘은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세력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자위의 강국으로 우뚝 솟아올랐다.

현실은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방해책동도 나라의 자주권과 리익을 지켜 정의의 한길로 나아가는 공화국의 앞길을 결코 막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부당한 《제재》로 초래될것은 공화국의 핵억제력이 질량적으로 더욱 확대강화되는 결과이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제재》와 전쟁연습 등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공화국을 굴복시키고 질식시키려고 최후발악을 하고있다.

그에 맞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자주권수호를 위한 전면대결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얼마전에 발표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도 천명된것처럼 원수들이 칼을 빼들면 창검으로 내리치고 총을 내대면 대포로 풍지박산내고 핵으로 위협하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 식의 정밀핵라격수단으로 맞선다는것이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불변의 리정이며 백두산식대응방식이다.

최후승리는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총렬기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온갖 적대세력들은 반공화국 《제재》소동이 오히려 저들의 종국적파멸만을 초래하게 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알고 분별없이 날뛰지 말아야 한다.

신성일

침략의 무리들을 정의의 강력한 힘으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지난 1일부터 발광적으로 벌여오고있는 북침합동전쟁연습은 시간이 갈수록 그 엄중성, 위험성이 더해지고있다. 《독수리》연습이 한창 벌어지는 속에 11일부터는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이 개시됨으로써 연습은 최절정을 이루고있다.

지금 전쟁연습이 미친듯이 벌어지는 남조선으로는 수많은 미군병력과 함께 《B-52H》 전략폭격기, 《F-22》 스텔스전투기, 이지스구축함 등 핵탄과 실탄을 장비한 지상과 공중, 해상라격수단들이 대량투입되고있다. 또한 지난 조선전쟁때에 《유엔군》의 간판을 쓰고 참전하였던 영국을 비롯한 여러 추종국가무리들도 참가하여 전쟁열기를 더욱 질게 하고있다.

이보다 앞서 미국은 조선반도 《유사시》 북의 핵과 미사일기지에 대한 정밀라격임무를 수행하는 《B-2》 스텔스폭격기 2대를 본토로부터 판도로 전진배치하였으며 지난 2월 중화적인 련합 해상훈련에 참가하였던 핵잠수함도 조선반도 주변에 그대로 주둔시키고있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이번 전쟁연습의 규모가 얼마나 방대한가를 잘 알수 있다.

지난 시기에 비해 거의 배로 불어난 전쟁연습기간도 결코 스쳐지날수 없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작전계획 5027》을 비롯한 수정보충된 북침전쟁각본에 따르는 단계

각에 실전으로 넘어가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외호전광들이 이번 전쟁연습을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을 막기 위한 《년례적인 방어훈련》인듯이 떠들어대고있는것은 세인을 기만하는 파렴치한 꾀병이다.

상대방의 수뇌부와 전략적거점들에 대한 선제라격과 《정권붕괴》를 목적으로 벌어지는 최대규모의 핵전쟁연습이 《년례적인 방어훈련》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다.

제반 사실들은 내외호전세력들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압살책동과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대처

하여 공화국이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자위적핵억제력을 마련한것이 얼마나 정당하고 옳은 선택이였는가 하는것을 다시금 여실히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고있는 지금 자주권수호를 위한 최후결전에 떨쳐나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최고사령관의 공격명령이 내려지기만을 기다리고있다.

미국의 극악무도한 전쟁행위로 하여 정전협정과 불가침합의들이 이미 하늘로 날아간 이 땅에서 전쟁의 대규모 포성이 울려오는것은 이제 시간문제로 되고있다.

공화국의 군대도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한 선제라격권리를 마음먹은대로 행사할수 있게 되었다.

다중화된 정밀핵라격수단과 전략로켓, 각종 포 등이 누르면 발사하게 되어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타버리게 되어있다.

공화국은 결코 빈말을 하지 않는다.

만약 내외호전광들이 신성한 조국강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천금같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침략의 아성들과 본거지들을 무자비하게 짓궂게버릴것이며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김철호



최대의 격동상태에서 싸움준비에 박차를 가하고있는 인민군군인들과 로농적위대원들

누가 전쟁을 발자인가

최근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속에서 그 누구의 《도발》라령이 계속 울려나와 세상을 소란스럽게 하고있다.

미국국무부 대변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등 미국정부의 고위당국자들은 련일 나서서 《북이 위협이나 도발로 아무것도 얻을수 없다.》느니, 《미국은 본토와 동맹국에 대한 도발을 완벽하게 방어할 능력을 갖추고있다.》느니 하고 련일 떠들어대고있다. 상천에 뒤질세라 김관진, 정승조를 비롯한 남조선군부장관들은 《적은 반드시 도발할것》, 《도발원점과 도발지연세력, 지휘세력 등까지 강력하고 단호하게 응징할것》이라는 악담들을 퍼붓고있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당한 권리행사를 《도발》로 매도하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온갖 적대세력들의 이 망동들은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날강도행위이다.

명백히 말하건대 지난 시기 공화국이 취한 모든 조치들은 철저히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자주권수호를 위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의 행사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위반으

로, 《장거리미사일발사》로 몰아붙인 인공지구위성발사문제를 놓고보자.

미국의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직후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하였다는것을 인정하였으며 《39026 KMS 3-2》라는 번호까지 붙였다. 미국이 인공위성임을 인정하고도 공화국의 위성발사를 《미사일발사》로, 《도발》로 《규정》하는것이야말로 자기모순의 극치이며 그 누구에게도 납득될수 없는 생어지이다.

이번에 단행한 제3차 지하핵실험도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권리를 란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적하여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대응조치의 일환이다.

공화국이 취한 조치들은 이렇듯 철두철미 정당당당하고 합법적인 자주권행사로써 그 누구도 이에 대해 《도발》이느니 뉘니 하고 시비할 권리도, 자격도 있을수 없다.

반공화국고립압살과 전쟁책동

으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엄중한 정세를 조성한 장본인인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력이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운운할 명분이나 체면이 있는가.

현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게 있으며 진짜도발은 바로 그들이 하고있다.

원래 상대방에게 《도발자》의 감투를 씌워 침략과 전쟁을 일삼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으로 되고있다.

조선반도에서 두 력사적으로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반공화국대결과 전쟁책동에 매달릴 때마다 《북도발》이라는 구실을 들이곤하였다.

1950년에 미국이 청소하한 공화국을 요람기에 삼켜보려고 리송만괴뢰도당을 사측하여 북침전쟁을 일으키고있는것을 《북의 남침》으로 몰아 유엔에서 비법적인 《유엔군》조각결의를 만들어내고 미군은 물론 추종국가군대들을 대대적으로 조선전쟁에 투입하였던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60년대의 《푸에블로》호

사건때에도 마찬가지였다. 신성한 공화국의 령해에 몰래 깊이 잠입하여 간첩임무를 수행하던 미국의 무장간첩선이 공화국의 영유한 인민군해병대에 의해 나포된것은 천만번 당연한것이 나. 그러나 그때도 미국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마치 공화국이 공해상에서 미군함선을 나포한것처럼 요란스레 떠들어대며 거꾸로 공화국에 사죄를 요구하였다.

세계가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보게 된 1970년대 중엽의 관문점사건의 도발자도 다름아닌 미국이었다.

당시 미국은 남조선강점 미군병력을 내몰아 관문점공동경비구역의 북측관리지역에 있는 나무를 상대측의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도끼로 마구 찍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명백히 총격적인 사건을 꾸며내기 위한 도발행위였다. 그들이 현장부근에 촬영기까지 미리 설치하여놓았다가 미국의 만행에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인민군초병들을 사진 찍는것만 봐도 그 음흉한 기도를 잘 알볼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미국은 거꾸로 도발의 책임을 공화국에 전가시키며 정세를 전쟁발발직전까지 몰아갔다.

조선전쟁이후 불과 불이 오간 최대의 사건으로 평가되는 2010년의 연평도포격전도 대결과 전쟁에 환장한 남조선군부장관무리들의 계획적인 도발에 의하여 발생하였다.

당시에도 남조선호전광들은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예민한 연평도주변수역에서 도발적인 포사격훈련을 벌여놓고 공화국의 신성한 령해에 포탄을 마구 쏘아대는 도발을 감행하였다. 공화국의 거들떠보는 경고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계속된 포사격도발행위에 연평도는 정의의 불세레에 얻어맞아 불바다가 되었다. 그것은 도발자들에게 내려진 응당한 징벌이었다.

그러나 군부장관들은 마치 공화국이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포사격을 한것처럼 사건을 날조하고 《도발》이니, 《응징》이니 하는 반공화국광대농음을 요란하게 벌여왔다. 하지만 내외의 공정한 여론은 사건의 책임은 바로 남조선군부장관들에게

있으며 도발은 바로 그들이 하였다는것을 일찌하게 인정하고있다.

공화국의 합법적인 위성발사를 결코 오늘의 험악한 사태까지 몰아온것이야말로 도발자가 누구인가를 똑바로 보여주고있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는 북침을 노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이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다. 《F-22》 스텔스전투기, 《B-52H》 전략폭격기를 비롯한 최첨단전쟁장비들과 방대한 침략무리가 동원된 이 전쟁연습이 실전으로 번지지 않는다는 담보는 어디에도 없다.

《년례적》이요, 《방어적》이요 하는 따위의 외피를 씌워놓는다고 하여 전쟁연습의 도발적성격을 가리워질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것이다.

공화국을 고립압살하기 위한 미국과 추종세력의 극악무도한 《제재》소동과 병행하여 발악적으로 벌어지고있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은 그 성격과 규모로 보나 훈련내용으로 보나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가장 위험천만한 핵전쟁불장난이며 가장 로골적인 도발행위이다.

오늘의 험악한 사태는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력이 우리의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위성발사와 정당당한 자위적조치인 핵실험을 막무가내로 걸고들며 정세를 계속 악화시키려는것이 결국은 북침전쟁의 불씨를 터뜨리기 위함이다. 《년례적》이요, 《방어적》이요 하는 따위의 외피를 씌워놓는다고 하여 전쟁연습의 도발적성격을 가리워질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을것이다.

정의를 위업, 적대세력과의 최후결전에 떨쳐나선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보복의 불벼락에 의해 침략자, 도발자들은 파멸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시 | 이제는 결판을 보자!

시시각각 분분초초 전쟁폭발의 순간을 앞둔 이 땅에 솟구치는 격노의 웨침이여 이제는 결판을 보자! 전면대결전으로 최후결산을 하자!

어찌 용서할소나 평화적위성발사의 기쁨을 안고 밝은 희망과 포부로 설레던 땅에 《제재》의 찬바람 불어온 놈들 자위적행시합의 성공으로 선군조선의 궁지가 넘치는 이 땅에 북침전쟁의 불을 지르려는 놈들

보라, 날강도적 《제재》소동으로도 모자라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으로 북침전쟁의 불길 불어오는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

이제 더는 못 참아 그리도 불을 즐기는 놈들

리철준
그리도 도발을 즐기는 원수들 불도가니속에 처넣지 않고선 이 땅이 하늘아래 그대로 두고선 심장이 터져와 못 참아

분노한 백두산혁명방군이 강철의 포신을 추켜들었다 한점의 불꽃이라도 이 땅에 튀긴다면 멸적의 불벼락을 퍼부으리라 다시는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핵을 가졌다고 무사하라 바다건너 있다고 무사하라 무자비한 보복의 불줄기는 단숨에 태평양을 날아넘으리 정의의 핵퇴성으로 침략의 아성 송두리채 날려

보라, 날강도적 《제재》소동으로도 모자라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으로 북침전쟁의 불길 불어오는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

이제 더는 못 참아 그리도 불을 즐기는 놈들

보내리
없다, 남조선호전광들도 살아날 길이
친치를 뒤흔드는 폭음 보복타격의 불바다속에 진짜전쟁맛이 어떤것인가를 폐허가 된 도발의 근원지에서 비참한 종말의 그 순간 알게 되리

오라, 보복의 시각이여 선군조선이 60여년을 두고 기다리다가려운 시각이여 버리고버리던 시각이여 감히 움찔만 해봐라 우리 그 기회 절대로 놓치지 않으리

최후의 결전을 부르는 이 땅 참고참아는 중요와 분노가 다지고다쳐온 불매의 무장력이 침략의 무리들을 씨도 없이 멸망의 불길속에 태워버리리라 오오, 이제는 결판을 보자!

김송림
자비를 모르리라 이런 호전광들을 그냥 두면 우리 민족이 유린당하고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 언제 가도 이룰수 없거니

우리의 단호한 보복선언에 《웅징》하셨다 《지휘세력까지 타격》하셨다

우리 어찌 무자비하지 않을수 있으랴
양키들 대포밥인 주제에 우리의 최고존엄 감히 걸고들며 전쟁의 망발 제치는 광신자들을

이런 놈들 이런 대결광들때문에 하나의 푸른 하늘을 이고 혈육의 정을 나누며 화목하게 살아야 할 우리 겨레 갈라져 60여년 아픔속에 살았다

양키의 피눈은 근화밀에 이 나라 절반땅을 삼기며 민족의 존엄이란 말자체도 모르고 외세의 노예로 사는 가련한 너희들

오늘은 또다시 미제를 하내비처럼 등에 업고 《지휘세력까지 타격》하셨다는 폭언

사려문 이발로 뇌까리며 동족을 겨냥한 핵전쟁연습 끝끝내 벌여놓았으니

무자비하리라 전쟁불장난의 불꽃이 단 한점이 라도 된다면 강력한 징벌의 불소나기를 퍼부으리라

민족의 하늘이고 땅이고 목숨인 우리의 최고존엄 감히 건드리는 호전광들의 머리 위에

문노로 가슴 필뿔 꿰이며 잠결에도 총을 더듬어 찾으며 우리 맛고보내는 낮과 밤 타들어가는 전쟁의 도화선인양 불타며 흐르는 이 땅의 하루

드디어 보복의 시각은 왔는가 《키 리졸브》, 《독수리》 그 횡포한 총포성에 실어 《원점타격》, 《북침전소멸》을 쉼

끝내 우리의 최후통첩에 피를 묻고 도전해나섰거니

천만이 일떠나 지켜가는 그 정의의 불벼락속에 네놈들이 문힐 곳 찾지 말라 추호도 용서를 바라지 말라

오, 중요와 복수로 다쳐온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으로 더는 살아 망발을 버거리지 못하게 세상에 댄던것을 죽여서도 원망하게

어떻게 이 중요 총대의 불로 내뿜지 않고 잠재울수 있던 말인가 어떻게 이 적개심 활화산처럼 터치지 않고 앓아있을수 있던 말인가

아, 공화국정권 불리만보아도 가슴겉는 우리 행복의 요람이며 우리 자주적삶의 터전인

참다운 인민의 정권 그 운명의 요람이며 터전을 감히 《소멸》하셨다고... 우리는 방어만을 하지 않으리 노도쳐나가 네놈들의 아성 쓸어버리리

그 피비린 야망을 위해 우리의 신성한 이 땅에 단 한점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그 기회 놓치지 않으리라 통일대전의 최후공격전으로 민족의 숙원 이룩하리라

그날이 그 시각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날에 그 시각에 우리 공화국을 위해 통일을 위해 어떤 막강한 힘 마련했는가를 무덤속에 들어가면서야 네놈들은 알게 되려니

풀어버리는 분노와 적개심이 가슴에 총탄으로 만장약되는 이 땅에 흐르는 날과 날 미제와 야합하여 남조선군부

광개들이 끝끝내 전쟁의 불 지르다면 오, 우리는 그날을 반드시 조국통일의 날로 빛내리라!

시 | 무자비하리라!

김송림
자비를 모르리라 이런 호전광들을 그냥 두면 우리 민족이 유린당하고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 언제 가도 이룰수 없거니

시 | 통일의 날로 빛내리라

박철
문노로 가슴 필뿔 꿰이며 잠결에도 총을 더듬어 찾으며 우리 맛고보내는 낮과 밤 타들어가는 전쟁의 도화선인양 불타며 흐르는 이 땅의 하루
드디어 보복의 시각은 왔는가 《키 리졸브》, 《독수리》 그 횡포한 총포성에 실어 《원점타격》, 《북침전소멸》을 쉼
끝내 우리의 최후통첩에 피를 묻고 도전해나섰거니

후회는 언제나 때늦은 법이다

미국은 자기의 잘못에 대한 사죄는커녕 오만과 강권을 만능으로 여긴다.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미국의 오만과 횡포에 의해 주권국가들의 자주권이 침혹히 유린당하고있는것이 오늘의 국제현실이다.
이런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에서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었다. 1950년대의 조선전쟁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의 《강대성》의 신화를 깨뜨리고 미국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시초를 열어놓았다.
1968년에 있는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건때에도 미국은 세계의 면전에서 또 한번 조선인민앞에 두손을 들고 항복했다.
《푸에블로》 호사건에서 공화국의 승리는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를 침해하려는 외세의 도발과 침략행위를 절대로 용서치 않는 선군조선의 불굴의 기개를 온 세상에 과시한 사변이었다.
당시 미국은 항공모함과 구축함 등 용군 한개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침

략무력을 동원하여 공화국을 굴복시켜보려고 근 1년동안 기세등등하여 달려들었다.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담할것이라는 공화국의 단호한 의지와 불굴의 기상 앞에 종당에 미국의 오만성은 사죄와 굴복으로 기죽어 버렸다.
미국정부는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가 감행한 정 략과 적대행위를 엄숙히 사죄하지 않으면 어떠한 합선도 조선인민주주의인민공화국령해를 침범하지 않도록 할것을 확고히 담보한다는 문건에 서명하였다.
《푸에블로》 호사건을 통해 과시된 북의 패승을 두고 남조선잡지 《말》은 2001년 5월호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푸에블로》 호사건때 북은 3A 즉 인정하고(Admit), 사죄하고(Apologize),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확약하라(Assure)를 관철시켰다.》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미국은 그 이후에도 공화국에 대

한 도발을 계속 감행했다. 《푸에블로》 호사건이 미국의 항복으로 결말을 본 후 4개월만인 1969년 4월의 《EC-121》 대형간첩비행기 사건, 1976년의 관문집사건, 1994년 12월의 미군정찰비행기 《OH-58A/C》 사건 등이 바로 그러하다.
2010년에도 미국의 배후조종 밑에 남조선의 호전광들은 공화국의 거두되는 사전경고 경에 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미 전쟁위험이 짙게 드리운 서남전선 최남단 최대열전지역의 섬방어대들을 시찰하시면서 적들이 감히 서를 불질을 해대며 공화국의 령토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그것을 서남전선의 국부전쟁으로 그치지 말고 조국통일을 위한 성전으로 이어갈때 대한 명령을 하달하시었다.
미국과 남조선 호전광들이 공화국의 령토, 령공, 령해를 0.001mm라도 침범하고 감히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감히 조국의 신성한 땅과 바다, 하늘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침략의 아성들과 본거지들을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전의 승리를 이룩할 것이다.
그때에는 아무리 손이아 말아야 밧어도 소용이 없게 될 것이다.
후회는 언제나 때늦은 법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도발의 소굴들은 무사할수 없다

지난 3월 11일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공화국의 거두되는 경고와 내외의 커다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인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을 끝끝내 강행하였다.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반공화국침략전쟁연습에 대처하여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원수들이 감히 조국의 신성한 땅과 바다, 하늘에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침략의 아성들과 본거지들을 무자비한 불벼락으로 벌초해 버리고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성취하고야말 멸적의 기세로 총탄되어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공화국의 최후통첩에 무모한 전쟁불장난으로 도전해나섬으로써 최소한의 전쟁억제

장치였던 정전협정과 불가침합의들은 전면폐기되게 되었으며 전쟁을 막을 제동장치가 완전히 풀린 조선반도정세는 지금 사정없이 전쟁폭발의 길로 질주하고있다.
원래 전쟁이 터지면 전역에 위치한 지역이 제일먼저 타격을 받는다는것은 고금의 상식이다. 더욱이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과 군사분계선 남측지역은 일찍부터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북침전쟁공격을 위한 전초기지, 도발의 소굴로 되어 있다. 적대세력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이 날로 더욱 기세를 부리고있는 속에서 최근년간 이 지역들에는 해병대와 각종 군사장비를 비롯한 침략무력이 대대적으로 증강되었다.
이에 기초하여 호전세력들은 언제 전쟁의 불꽃이 튀지

않을수 없는 예민한 이 지역에서 북침전쟁공격연습을 때없이 벌리면서 극도의 도발을 일삼아왔다.
2010년의 연평도사건도 남조선호전광들이 공화국의 거두되는 사전경고를 무시하고 공화국의 수역에 감히 포사격도발을 감행함으로써 일어났던 것이다.
조선속담에 불을 좋아하는 놈 불에 타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불에 타죽으려고 찍찍이면 예민한 열전지역에서 불장난질을 해대고있는 호전광들의 소굴이 공화국의 섬멸적인 반타격, 정의의 불벼락에 모조리 불도가니로 화할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일마전 대연평도, 백령도 타격에 인입되는 열전지역 인민군 포병부대들의 실전능력관정을 위한 실탄사격

족제비도 낫짝이 있다는데

남조선에서 통일부 장관 자리에서 류우익이 11일 《퇴임사》라는데서 리명박 《정부》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상생공영》의 길을 가려고 했으나 북이 거역했다.》느니, 《북이 계속 잘못된 길을 고집한다.》느니 하는 고약한 발언을 늘어놓았다. 그런가하면 북의 《인권》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느니, 《실질적통일준비》이 워니 하는 너드러도 늘어놓았다.
족제비도 낫짝이 있다는데 반통일분자로 악명을 떨친 류우익이 장관의 자리를 내놓는 마지막날에조차 동족대결의 협담을 또다시 늘어놓는것을 보면 만고역력 리명박에 조금도 짝지 않는 파렴치한이 틀림없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리명박 《정권》은 지난 5년간 북남관계에서의 《원칙적소극》라는것을 떠들면서 류제비 없는 반통일동족대결책동을 광란적으로 벌여왔다.
류우익으로 말하면 통일부 장관하는 장관자리에

를고앉아있으면서 지난 1년 5개월동안 리명박역도의 동족대결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반복, 반통일악행만을 일삼은 인민의 반역자이다.
통일부 장관취임당시 류우익은 《유연한 대북정책》이니, 《내 이름이 《유연성》으로 바뀌었다.》느니 하면서 마치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것처럼 여론을 오도하였다. 그러나 《유연성》을 표방하는 그가 장관자리에 올라왔은 이후 남조선보수당군의 대결정책에서는 조금도 달라진것이 없었으며 오히려 북남관계는 더 파국에로 나아갔다.
통일부의 방해책동에 의해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이 공화국은 물론 제3국에서 북의 인사들과 만나지조차 못하게 되었다. 또한 시대착오적인 《5.24조치》를 계속 유지하면서 북남경제협력사업에 종사하던 수많은 남조선기업들까지 파산의 낭떠러지로 내몰았다.
이렇듯 북남관계를 더욱더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남조선

의 통일부가그간 거짓 생색 내기로 했다가는 《제재대결》과 《휴수통일》 야망이 비껴있는 《통일항아리》제작이니, 《통일기금마련》이니 하는 판대술을벌이었다.
제 이름마저 《류연성》이라고 요사스럽게 늘어대면서 여론을 기만하고 민족을 우롱해온 류우익과 보수세력의 대결책동은 남조선사회 각계는 물론 《국회》에서까지 규탄과 배격을 받았다. 통일부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류우익이 주관하는 통일부의 《대북정책》과 북남관계를 《총체적실책》, 《락제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북남관계악화에 대한 백서를 발행할것을 요구했다.
국악한 반북대결분자인 류우익이 공화국에 대고 퍼부은 악담질을 두고 남조선보수계층에서까지 《간담을 서늘게 하는 베풀어진 실연》이라고 평한것은 역도의 반공화국대결광들이 극도에 달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류우익이 이번에 퇴임하면서까지 대결적망발을 제쳐낸것은 리명박역도의 동족대결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달려다가 종말을 고하게 된 자기의 가련한 처지를 모면하고 북남관계를 풍지박산낸 대역적죄를 조금이라도 가리워보려는데 그 더러운 목적이 있다. 또한 그것은 공화국을 마구 헐뜨면서 끝까지 대결해버리는 추악한 본성과 악습의 발로이기도 하다.
은 민족은 리명박역도와 함께 류우익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시골에 처박혀 온신한다고 하여도 절대로 민족의 중요의 눈은 퍼할수 없다.
본사기자 한영수

수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하여었다.
그런데도 김병관이 장관의 복장을 걸치기도 전에 선임자들의 분노를 따 도저히 용서 못할 극도의 반북대결폭언을

늘어놓는것은 사물관단도 제대로 못하고 물뽕뽕물뽕뽕하는 그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낸것이며 그 역시 김관진과 정승조와 함바리에 실어 도둑지니 않을 전쟁광신자라는것을 그대로 드러보여준것이다.
늘어놓는것은 사물관단도 제대로 못하고 물뽕뽕물뽕뽕하는 그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드러낸것이며 그 역시 김관진과 정승조와 함바리에 실어 도둑지니 않을 전쟁광신자라는것을 그대로 드러보여준것이다.

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한 최후결전에 진입해있고 공격명령만 내기까지 기다리고있다.
이전에 한갓 투기거간군 노릇이나 하며 돈벌레기질을 굳히고 공화국의 진짜전쟁맛을 모르는 김병관따위가 세치 혀바닥을 함부로 놀리는것이야말로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어리석은것이 아닐공화국의 체제와 존엄을 감히 건드리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무자비한 징벌을 면치 못한다.
권지혜

《미국주도의 <대북적대정책> 을 단호히 반대하자》

해례외 온 겨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또다시 조작하고 그것도 성취하지 않아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벌리면서 핵전쟁소동을 벌리고있는데 대대적 규탄하고있다.
남조선의 진보련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전국여성련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과 론평을 통해 《현재 고조되고있는 전쟁위기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추진을 촉매제로 하여 유발되었다.》, 《미국의 《대북적제》와 압박이 낳은 결과》

라고 하면서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제재와 압박, 강도높은 전쟁연습은 군사적총들과 민족적침략을 부를뿐》이라고 하면서 《동북아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고 군사적개입을 강화하기 위한 미국주도의 《대북적대정책》을 단호히 반대하자.》고 호소했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민가협량심수원회 명예회장, 《우리 사회연주소》 리사장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 인사들과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 등 통일운동단체들도 론평과 성명 등

을 통해 호전광들이 《한》 미련함군사훈련을 《일상적인 방어훈련》이라고 억지를 부리지만 훈련규모와 내용으로 볼 때 《북북파》와 북침략을 목표로 한 공격적인 전쟁연습이라고 규탄했다. 더우기 유엔 《제재결의》 2094호 채택과 때를 같이하여 전쟁연습이 벌어지는것은 명백히 《북을 향한 무력시위》고 위협이다.》고 하면서 《단 한발의 총성이 《국지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전면전쟁으로 번져 민족공멸의 위기를 조성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013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중단 촉구》

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도 광화문 미국대사관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북침전쟁연습의 침략적성격을 폭로하였다.
참가자들은 《미국은 주 《한》 미군철수를 포함하여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전쟁위기를 근원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조선의 여러 대학의 교수들과 전문가들은 조선반도에 극단적인 위기가 조성되었다고 하면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부질없는 《대북적제》 놀음과 북침전쟁연습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사기자 윤현주



북침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과 재미동포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공화국의 제3차 지하핵시험을 걸고 《북핵위협》소동을 벌리는 것과 관련하여 기자는 주문호 조국통일연구원 실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공화국의 그 무슨 《핵위협》에 대해 떠들고 있지 않는가.

주문호: 그렇다. 최근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세력들이 그 무슨 《북핵위협》소동에 그 어느때보다 더욱 열을 올리고있다. 지어 《북핵위협》제거를 위해 공화국의 핵시설들에 대한 《선제타격》까지 운운하고있는판이다.

기자: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북핵위협》을 떠들게 된 동기에 대하여 설명해달라.

주문호: 지난해 12월 12일에 진행된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 2호기의 발사는 주권국가인 공화국이 우주리용권리를 당당히 행사한것으로서 문제시될것인 한 하나도 없다. 그런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저들도 인정하는 공화국의 성공적인 인공위성발사를 《장거리미사일발사》로, 유엔 《결의》에 대한 《과기행위》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도 도전》으로 흑백을 전도하면서 그것을 여론화해오던 끝에 유엔 안전보장리사회를 발동하여 공화국에 대한 새로운 《제

대담 | 조선반도 핵위협 의 진상

제결의》를 조작해왔다. 60년이 넘는 유엔력사에 지구상에서 9 000여차례의 위성발사가 진행되었지만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서 이를 문제시한적은 한번도 없다. 특히 일본을 비롯한 추종국자들의 군사위성발사 등 우주군사화책동에 대해서는 목인, 비호조장하면서 공화국의 위성발사에 대해서만 문제시하는것이야말로 전횡이고 도발이 아닐수 없다.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가중되는 《제재》와 압살책동에 대처하여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대응조치로 지난 2월 12일 제3차 지하핵시험을 단행하였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이를 반공화국압살소동의 구실로 삼아 또다시 《제재결의》를 조작해내고 그 어느때보다 《북핵위협》을 떠들며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있는것이다. 기자: 미국이 핵문제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주문호: 없다. 미국으로 말하면 지구상에서 처음으로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평화적 구실로 삼아 또다시 《제재결의》를 조작해내고 그 어느때보다 《북핵위협》을 떠들며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있는것이다. 기자: 미국의 핵문제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대한 엄중한 위협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한것은 미국이다. 이때 우리 민족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원자탄투하에 의한 조선인피해실태에 대하여서는 지난 시기 일본정부는 물론 지방자치체들에서도 똑똑히 하지 않았기때문에 오늘까지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있으나 민간급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어느정도 그 진상이 밝혀졌다.

남조선의 《원폭피해자협회》는 당시 조선인원자탄피해자총수가 약 7만명이며 그중 사망자가 약 4만명에 달하였다고 추정하고있다. 이렇게 인류에게 처음으로 핵참화를 들뜨운 미국은 핵문제를 운운할 아무런 자격도 명분도 없다. 기자: 미국의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주문호: 미국의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은 이미 오래전인 지난 조선전쟁시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때 미국은 공화국을 상대로 원자탄을 사용하려 획책하였다. 남조선을 타도않고 북침전쟁지대로 삼은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한지 7주후인 1950년 8월 중순 남조선에 핵무기를

처음으로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1950년 11월 미국대통령 트루먼은 기자회견에서 《조선전쟁에 원자폭탄사용을 적극 검토하고있다.》고 떠벌였고 미국동군사령관 맥아더는 그해 12월 《북중접경지역에 원자탄 30~50개를 투하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서 공공연히 핵공갈에 나섰다. 그 이후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반입과 배비는 부단히 증대되어 그 수가 1970년대에는 1 000여개를 넘어었고 1990년대에는 1 720여개에 달하였으며 남조선은 그 배비밀도에 세 계 최대의 지역으로 되었다.

전쟁시기에 미국은 1만 3 000기의 핵무기를 해외에 배비하였는데 그중에서 6 000기 이상이 조선반도주변과 아시아에 배비되었다. 핵폭탄, 핵포탄, 핵지뢰, 중성자탄 등 각종 핵무기로 남조선을 뒤덮은 미국은 그것으로 공화국을 위협하고 북침핵전쟁을 감행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여왔다. 남조선에 핵무기를 이렇게 대대적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미국은 북침핵전쟁계획을 세워놓고 공화국을 위협하였지만 조선인민을 굴복시키질수 없었으며 그때마다 참패를 당하고 저들의 침략성과 취약성

미국이 주도하여 남조선에서 진행되는 《팀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 《올지 포커스 렌즈》 합동군사연습, 《독수리》 합동군사연습, 《련합진지지원연습》(《RSOI》),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들은 단지 명칭이 다를뿐이지 그 성격에 있어서 나 본질에 있어서 모두가 다 공화국을 겨냥한 북침핵전쟁연습이다.

또한 이 전쟁연습들에 적용된 《작전계획 5026》,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 《작전계획 5030》, 《작전계획 5012》, 《작전계획 8044》, 《작전계획 8022》, 《작전계획 8010》을 비롯한 수많은 계획들도 철두철미 북침핵전쟁공격계획들이다. 이번이 아니다.

1968년 1월 23일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나포사건, 1969년 4월 15일 《EC-121》 대형간첩비행기 사건, 1976년 8월 18일 판문점사건 등 미국은 각종 사건들을 계기로 수많은 핵학공모함과 각종합선, 전략폭격기 등 술한 핵무장장비를 가지고 공화국을 위협하였지만 조선인민을 굴복시키질수 없었으며 그때마다 참패를 당하고 저들의 침략성과 취약성

만을 만천하에 드러내놓았을 뿐이었다. 이 모든 사실들은 우리 민족을 핵으로 위협해온 장본인이 다름아닌 미국이라는것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있다. 미국의 핵전쟁책동에 추종하여 남조선을 외세의 핵군사기지로 송두리채 내맡긴 특동핵전쟁하수인들인 역대 남조선의 호전세력들도 조선반도에서 핵문제를 산생시킨 공범자로서의 책임을 모면할수 없다.

이러한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이 그 무슨 《북핵위협》설을 늘어놓는것이야말로 언어도단이다.

기자: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북핵위협》소동을 벌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주문호: 그것은 명백하다. 미국의 음모가들과 전쟁사관군들이 오래전부터 조선반도를 《아시아라는 고기덩어리》에 떼어낼수 있는 단검, 《공공의 그 어느 지역에도 군사력을 마음대로 들이밀수 있는 집정대리》라고 중요시하면서 전조선반도를 지배하기 위해 벌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써왔다는것은 이미 지상에 새겨진 사실이다. 지난 시기 이라크, 리비아를 비롯한 저들의 세계제패야망 실현에 장애물이 되는 나라

들을 제거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의혹, 핵개발의혹 등으로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불안정된 세력으로 몰아대면서 침략을 감행했던것처럼 미국은 《북핵위협》을 걸고 공화국에 대한 침략의 구실을 마련하려고 하고있다.

특히 미국은 21세기 아시아태평양전략을 실현하는데서 미군의 남조선에 대한 계속추진과 미차일방위체계구축, 남조선, 미국, 일본 《3각군사동맹》 실현을 내세웠는데 바 그것을 위한 명분마련으로 《북핵위협》론이 절실히 필요하기때문이다.

한편 남조선호전세력들은 미국을 등에 업고 《북핵위협》을 구실로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통일》을 실현해보겠다는 어리석은 목적밑에 상진이 붙어대는 《북핵위협》소동에 열성스레 맞장구를 치고있다. 이런 불순한 목적밑에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북핵위협》설을 요란스럽게 붙여대면서 지금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대규모적인 북침핵전쟁연습을 벌리고있는것이다.

기자: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한 공화국의 강력한 대응조치는 정당하다고 본다.

감출수 없는 핵공범자의 정체

최근 남조선에서 공화국의 자위적인 제3차 지하핵시험을 걸고드는 동족대결소동이 악랄하게 벌어지고있다.

남조선의 군부호전파들은 《북핵위협》설을 떠들며 《강력대응》의 간판밑에 외세와 야합한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하고있다.

얼마전에도 남조선군부당국은 미국과 그 누구의 《핵무기사용정후》가 있을 경우 《선제타격》을 가하는 《결재안》이라고 하는 《미사일타격체계》 수립을 다그치기로 하였다.

남조선의 보수정권들속에서는 《안보위기》론을 내들며 저들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위협천만찬개변들이 마구 튀어나오고있다.

《북핵위협》설의 간판밑에 남조선에서 악랄하게 벌이는 반공화국핵소동과 핵무장론은 조선반도핵위협의 진상과 핵호전파로서의 저들의 범죄적정체를 가리우기 위한 역저는 추태이다.

남조선의 역대 통치배들은 남조선에 1 000여개의 미국 핵무기를 배비된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집현시키기도 모자라 자체핵무기까지 개발하여 강도와 겨레를 핵참화속에 몰아넣으려고 책동한 범죄자들이다.

다른것은 제쳐놓고라도 남조선이 《핵추진확보》를 운운하며 오래전부터 비밀리에 핵무기개발을 다그쳐온 역사적사실만을 파헤쳐보기도 하자.

남조선에서의 핵무기개발은 1960년대부터 역대 《정권》들이 대하여 끈 수신했다가 기미 《정책》으로 추진되어왔다. 1960년대초 《5.16군사정변》으로 권력을 강탈한 박정희군사 《정권》은 《안보》를 위한 《최중수단》은 핵무기보유의 철폐에 없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핵무기를 개발할것》이라고 공언하면서 핵무기개발을 정책화하는데로 나아갔다.

군사 《정권》의 총지휘아래 《원자력연구개발 장기리용계획서》, 《원자핵연료개발계획》, 《원자핵무기개발계획》 등 각종 핵무기개발계획들이 수립되고 청와대직속으로 핵무기개발을 위한 비밀특별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가 조직되었다. 남조선통치배들은 핵무기개발을 위해 해외에서 핵개발투자권과 기술실비들도 대대적으로 끌어들이었다.

원자력기초설계는 이미 1975년에 완성되었는바 당시 《국방과학연구소》가

완성한 기초설계는 20kt급 플루토늄 울탄 (공중투하형)이었다.

당시 군사 《정권》은 1981년 10월 《국군의 날》에 맞추어 핵무기보유를 선포할 계획까지 짜놓고있었다.

남조선의 핵무기개발은 《10.26사건》 이후 전두환, 로태우군사 《정권》에 의해 계속되었을뿐아니라 《대체에너지개발》이라는 외피를 쓰고 더욱 박차가 가해졌다.

군사 《정권》의 바통을 이은 《문민정권》도 《이제는 우리도 핵능력을 가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핵기술패발을 《국가적절약》을 기용인다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세우고 핵무기개발능력을 부단히 키워나갔다.

하여 1990년대초에 남조선은 핵연구개발을 위한 큰 규모의 연구소들 20여개나 가지고있었으며 박사급 1 500여명을 포함하여 1만 5 000여명이 여기에 종사하고있었다.

남조선은 원자로들에서 폐연료를 체계적으로 저축해오고있으며 2002년 12월에 벌써 그 루직량은 무려 5 982t에 달하였다. 이 폐연료에서는 무기급플루토늄을 36t이나 추출할

수 있으며 이 량으로는 일본의 나가사키에 투하된것과 같은 원자탄 3 000여개를 만들수 있다.

남조선은 핵관련기술의 개발과 함께 핵운반수단의 도입과 개발도 동시에 추진하였다. 남조선원자력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핵전문가들은 현재 남조선의 핵포탄제조능력은 세계 10위로서 3개월이면 핵무기 1개를 만들어낼수 있으며 농축우라늄 추출기술도 《세계적수준》이라고 공개적으로 떠들어대고있다.

남조선의 핵무기개발은 철저 미국과 목인, 비호하여 추진되었다.

실례로 2011년 11월 남조선의 한 소설가가 《모자의 날》라는 실화소설을 통해 남조선과학자들이 2000년에 우라늄농축설비를 개발하여 우라늄농축설비를 3차레나 진행한 사실을 폭로하여 파문을 일으켰다.

그에 의하면 당시 국제원자력기구는 남조선의 우라늄농축설비를 사찰하고 그 결과에 대해 《〈한국〉 과학자들은 두가지방법을 사용하여 우라늄 농축을 피하고 실험을 성공할수 있었다. 하나는 농축된 우라늄농도를 다시 떨어뜨려 증기를 희석하는 역실험방식이었고 또

하나는 〈모자의 날〉 방식이었다.》고 실로하였다. 역실험이라는것은 우라늄 235에 우라늄 238을 섞어 농축도를 떨어뜨리는 방식이고 《모자의 날》방식은 다른 실험을 전면에 내세워 본 실험을 감추는 이른바 그림자실험을 의미한다.

당시 미중앙정보국 요원들이 대대적으로 남조선에 파견되어 우라늄농축정형을 살상이 조사하였지만 그 내막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고 미국은 이에 대해 《학술실험에 불과한것으로서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서 묵인하였다.

외세의 핵무기공우에 올라온것도 모자라 자체 핵무기개발을 추구해온 남조선이 드리어 그 누구의 《핵위협》을 운운하며 공화국의 자위적대응조치를 걸고드는것은 도저히 용납될수 없다.

남조선이야말로 미국과 함께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씨를 심은 범죄자들이며 핵위협의 공범자, 주범이다. 남조선의 군부호전세력들과 대결광신자들은 그 어떤 계변과 모략소동으로써 외세의 핵전쟁마차를 끄는 머슴꾼, 핵호전파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가리울수 없다.

본사기자 주광일

최근 공화국의 조강경대응의지에 기절초 주력단, 천정부지로 튀어오르는 가계부채로 인한 미국이 반공화국 《제재》와 함께 《인

권》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이 유별리는 사람 못살 곳이 남조선이다. 언을 악용하여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조

사하는 기구를 설치할것을 목적으로 한 《결의》를 조작하려 하는것이 바로 그것이다.

더우기 작문을 금할수 없게 하는 것은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이 《적극적인 동맹》이니, 《국제적협력》이니 하고 고아대면서 상진의 책동에 적극가담해나서고있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인간스레기들을 내몰아 저들이 뒤끝방에서 꾸며낸 자료로 《증인》놀음을 벌려놓게 하면서 국제적인 반공화국여론을 조성해 보려고 미친듯이 발악하고있다.

인권말살자들의 주재명은 망동이 아닐수 없다. 세계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공화국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되는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나라이다. 인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되고 인민을 위한 각종 사회정책들이 실시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애당초 《인권문제》라는것이 생겨날수도 없다. 공화국정부가 남조선사회와 결별하고 다시 찾아온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준것은 사랑과 민생으로 온 나라 인민들을 보살피고 내세워주는 공화국의 인덕정치를 그대로 보여 주는것이다.

이런 공화국에 《인권유린》의 감투를 씌우려는것이야말로 현실을 괴롭히게 하고 외국하는것이고 공화국을 끝까지 적대시하고 압살해보려는 범죄적책동의 산물이다.

인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으로 하여 지란반야아 할 곳은 인간생지육인 남조선이 《인권》모략소동이 가져올 파괴적후과를 명다. 천만원을 넘는 등록금때문에 대학생을 심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자살의 길을 택하고 만성적인 실업난,

최근 공화국의 조강경대응의지에 기절초 주력단, 천정부지로 튀어오르는 가계부채로 인한 미국이 반공화국 《제재》와 함께 《인

권》모략소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미국이 유별리는 사람 못살 곳이 남조선이다. 언을 악용하여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조

사하는 기구를 설치할것을 목적으로 한 《결의》를 조작하려 하는것이 바로 그것이다. 더우기 작문을 금할수 없게 하는 것은 남조선의 대결광신자들이 《적극적인 동맹》이니, 《국제적협력》이니 하고 고아대면서 상진의 책동에 적극가담해나서고있는 사실이다. 이와 함께 인간스레기들을 내몰아 저들이 뒤끝방에서 꾸며낸 자료로 《증인》놀음을 벌려놓게 하면서 국제적인 반공화국여론을 조성해 보려고 미친듯이 발악하고있다.

인권말살자들의 주재명은 망동이 아닐수 없다. 세계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공화국은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되는 가장 우월한 인민대중중심의 나라이다. 인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되고 인민을 위한 각종 사회정책들이 실시되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애당초 《인권문제》라는것이 생겨날수도 없다. 공화국정부가 남조선사회와 결별하고 다시 찾아온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준것은 사랑과 민생으로 온 나라 인민들을 보살피고 내세워주는 공화국의 인덕정치를 그대로 보여 주는것이다.

이런 공화국에 《인권유린》의 감투를 씌우려는것이야말로 현실을 괴롭히게 하고 외국하는것이고 공화국을 끝까지 적대시하고 압살해보려는 범죄적책동의 산물이다.

인권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으로 하여 지란반야아 할 곳은 인간생지육인 남조선이 《인권》모략소동이 가져올 파괴적후과를 명다. 천만원을 넘는 등록금때문에 대학생을 심하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 자살의 길을 택하고 만성적인 실업난,

본사기자 주광일

핵위협의 장본인은 미국 (1) 조선전쟁시기의 치떨리는 원자탄사용계획

지금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세력들은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자위적인 제3차 지하핵시험을 걸고 반공화국 《제재》와 군사적공세에 발악적으로 매달리면서 한편으로는 그 누구의 《핵위협》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어대고있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출현한것은 미국의 세계제패야망의 산물이었다. 1945년 8월 일본에 대한 두 차례의 원자탄투하로 세계에 가장 부러운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실물로 세상에 보여준 미국은 그때부터 핵공동을 휘두르며 침략과 전횡을 마구 일삼아왔다. 미국이 일본다음에 실제로 핵무기를 사용하려 한 지역이 바로 조선반도였다.

1950년 6월 리승만 《정권》을 사측하여 조선전쟁을 도발한 미국은 인민군대의 드센 타격으로 패전의 쓰디쓴 고배들을 럽이 마시

이것은 바로 미국이다. 케변이며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파괴하고 핵전쟁위험을 지속적으로 몰아온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기 위한 비렬한 옹공수사이다. 오늘 공화국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을수 없도록 핵위협을 끈질기게 가해

게 되자 원자탄을 사용할 비렬한 총계를 꾸미었다. 2010년 10월 미국의 AP통신이 비밀해제된 미록군문서를 입수하여 공개한바에 의하면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한지 7주후인 1950년 8월 중순에 핵무기를 남조선에 처음으로 배치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1950년 11월 당시 미국대통령 트루먼은 조선에서 《원자탄사용을 고려중》이라고 공식표명하였으며 미전략항공대에 《극동에 즉시적인 원자탄투하를 위해 목적기들을 날려보낼수 있도록 대기》할데 대한 지령을 하달하였다.

이것은 바로 미국이다. 케변이며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파괴하고 핵전쟁위험을 지속적으로 몰아온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기 위한 비렬한 옹공수사이다. 오늘 공화국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을수 없도록 핵위협을 끈질기게 가해

행하였다. 당시 미국원자력위원회가 플루토늄을 비롯한 핵물질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들어 이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미행정부는 그 구상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추후 한의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범죄적인 방사능살포를 기어이 감행하려고 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미국은 인민군들에게에 정박하고있던 미국항공모함에 은밀히 핵무기를 배비하고 핵탄을 적제한 함재기들에 출격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1952년 12월초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이것은 바로 미국이다. 케변이며 조선반도에서 평화와 파괴하고 핵전쟁위험을 지속적으로 몰아온 저들의 죄악을 가리우기 위한 비렬한 옹공수사이다. 오늘 공화국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을수 없도록 핵위협을 끈질기게 가해

행하였다. 당시 미국원자력위원회가 플루토늄을 비롯한 핵물질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들어 이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미행정부는 그 구상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추후 한의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하면서 범죄적인 방사능살포를 기어이 감행하려고 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미국은 인민군들에게에 정박하고있던 미국항공모함에 은밀히 핵무기를 배비하고 핵탄을 적제한 함재기들에 출격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1952년 12월초 대통령으로 당선된 아이젠하워는

심판대에 오른 역도를 조소

남조선의 《한겨레》, 《경향신문》이 5일 집권기간 갖은 악행과 부정부패를 일삼는 리명박역도가 심판대에 오르것과 관련한 사실들을 실었다.

사실들은 리명박이 퇴임하자마자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되었다고 조소하였다. 참여연대 등이 리명박역도와 일련해 부정부패혐의로 검찰에 고소한데 대해 사실들은 언급하였다. 리명박이 집권 전기간 각종 부정부패혐의로 여론의 비난을 받았으며 그중에서도 내곡동주재부재입사건과 민간인법률사찰사건, BBK주

본사기자 주광일

가조작사건은 대표적인것들이라고 사실들은 밝혔다. 사실들은 내곡동주재부재입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리명박이 비밀자금을 조성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사실들이 밝혀진데 대해 폭로하였다.

권력층이 각계층을 불법적으로 감시, 미행함으로써 물의를 일으켰던 민간인불법사찰사건 역시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중대범죄에 속한다고 사실들은 비난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사건들이 리명박의 측근들인 법무부장관을 받았으며 그중에서도 내곡동주재부재입사건과 민간인법률사찰사건, BBK주

본사기자 주광일

과소악법을 휘두른 역도의 집권행적을 폭로

남조선의 민가협 량심수후원회가 9일 서울에서 모임을 가지고 과소악법을 휘두른 리명박역도의 집권행적을 폭로하였다. 모임에서 발원자들은 리명박이 집권한 후 해마다 《보안법》위반혐의로 검거되는 수가 늘어났으며 탄압이 집권 전기간 계속되었다고 비난하였다. 지난 5년간 귀에 걸면 귀

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보안법》람용이 극심하였다고 하면서 하기에 국제기구들이 악법패지를 권고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이어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보안법》을 비롯한 반민권, 반통일 악법들을 철폐하고 모든 량심수들을

방해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결국 커다란 의문만을 남긴 채 수사가 마무리되고말았다고 사실들은 밝혔다.

사실들은 빨리 드러난 혐의를 덮어주거나 모르는척 할수는 없다고 하면서 검찰당국이 리명박과 관련된 부정부패사건들을 철저히 수사할것을 요구하였다. 사실들은 검찰청국이 이를 호지부지할 경우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것을 명심해야 하며 리명박일가도 더이상 법의 심판을 회피할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다.

본사기자 주광일

